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3월 9일 금요일 (음 1월 22일)

제200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김기원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및 '전라북도 재난봉사단' 200여명이 2018 전라북도 재난봉사단 출범식을 갖고 '안전한 전북! 행복한 전북!'을 외치며 카드섹션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전주 영화의 거리 '레드'로 통한다

시, 가로등·아케이드 등 영화제 행사공간 주변을 영화제 고유색으로 도색

전주시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영화의 거리와 오거리 문화광장을 화사한 붉은 빛깔의 '전주레드'로 바꾼다. <관련기사 4면>

시는 오는 5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에 대비해 영화제 행사장 주변인 오거리 문화광장과 영화의 거리 일대의 가로등과

아케이드, 도로를 전주국제영화제 상징색인 '전주레드'로 도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대상 시설물은 오거리 문화광장 주변 가로등 13개와 영화의 거리 내 아케이드 47개, 가로등 25개 정도이다. 또 영화의 거리 도로에도 전주레드 바탕의 영화제 원형 로고가 5개 정도 도

색·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특화거리인 영화의 거리에 대한 환경 정비 및 통일된 경관 조성으로 인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관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영화의 거리와 오거리 문화광장을

전주레드로 도색하는 것은 색깔을 통해 전주국제영화제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영화전문잡지인 '무비메이커'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25개 영화제 중 하나로 선정할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올해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영화제 조직위와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우리 운명 남에게 맡길 수 없어... 평화 초석 놓겠다"

문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서... "미투운동으로 여성 차별 아픔 드러나... 위로·격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8일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손잡고, 북한과 대화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며 "그것이 진정한



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0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오랜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아픔이 많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전에는 대북 특사단이 평양을 다녀왔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됐다. 남북 간의 대화뿐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라며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나라를 위하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의 가치와 위상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전해 주목을 받았다.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으로 정치권에서도 미투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안 지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대선예비후보 경쟁

자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성장에는 여성들의 기도와 눈물이 녹아있다"면서 "가장 약하고 낮은 곳으로 향했던 이 분들의 사랑이 기독교 정신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했다. 부드럽지만 강한 힘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땅의 여성들은 정말 강하다. 신앙과 사랑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며 "요즘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여성들의 차별과 아픔에 대해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고통 받은 미투운동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시스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오늘 평창 패럴림픽 개막

대한민국 선수단, 종합 10위 도전한다

6개 종목 36명 참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은 사상 첫 금메달과 함께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다양한 종목에서 고르게 메달을 수확하며 겨울스포츠 강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패럴림픽까지 기세를 잇겠다는 각오다.

이번 패럴림픽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49개국 570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등 6개 종목 80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한국은 6개 전 종목에 36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역대 대회에서 은메달 만 2개 획득했다.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첫 금메달과 함께 종합 10위(금·은 1·동2)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9일 개막한다. /뉴시스

GM군산공장 실직위기 가정 전북도, 긴급복지 신속 지원

현장 확인 통해 월 기준 소득 338만9000원 이하 재산 8500만원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우선

전북도는 GM 군산 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실직 위기에 있는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급여를 신속히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위는 이번 GM사태로 실직할 후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수령이 끝난 후 취업을 못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긴급복지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군산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실직위기 근로자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이나 시·군·구청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즉시 현장 확인(1일 이내)을 통해 월 기준 소득 338만9,000원(4인 기준) 이하, 8,500만원 이하의 재산과 금융 재산 500만원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한다.

전북도는 이번 대상자가 지원기준을 약간 상회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및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연계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각 시·군 긴급

복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지원이란 갑작스런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4인 기준 1개월 117만원의 생계유지비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 △4인기준 42만원의 주거 급여 △초·중·고 학비와 수업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편 전북도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의 금융재산 기준이 너무 낮다는 신청자들의 요구가 있어 GM 군산 공장 폐쇄로 인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현재 500만원 이하(거주 700만원)인 금융재산을 700만원 이하(거주 900만원)로 완화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군, 탄핵정국 무력진압 모의'

16면 - 역사의 산증인 '고인돌유적'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